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배당 이전 준비 모임 안내  
식사 친교 후에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준비위원: 당회원 및 각 구역 구역강사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김남영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이관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 달 구역모임은 쉽니다. (구역현금만 준비해 주세요)

## 6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6/09		우영이	김남영 권사 가정	한순자
6/16	허도행	이관기	이관기 집사 가정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경쟁과 상생  
본문: 사무엘상 18장 6~12절  
기도제목: 1.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축복해 주자.

- 경쟁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작동할 수 있도록!
- 경쟁의 영이 아닌 상생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고,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향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쟁에서 사울만 일방적으로 망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셨습니다. - 5,2,1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과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들과 비교하면서 맘 상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쟁심 질투심이 나타날 때, 우리들도 그와 같은 질투심 경쟁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잠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나쁜 상태를 계속 키워가면 안됩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옛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심, 시기심이 마음 속에 가득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 **아!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두워져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상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제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살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경쟁자이며 대적이었던 사울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경쟁자를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자로, 함께 상생하려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상생하려는 자입니다. 나는 경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상생하려는 자인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 안되어야 한다! 이 소리는 세상의 소리이며, 거짓 소리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경쟁의 영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영에 붙잡혀 그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언제나 살리려고 하였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 사람을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경쟁입니까? 아니면 상생입니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지난 주 야외예배 관계로 헌금계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 헌금 통계와 함께 신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행사안내

예배당 이전을 위한 준비 모임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우영이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9번(시편84편)		
찬 송 Hymn	393장		
기 도(Prayer)	김유신 집사		
성 경 Scripture	사무엘상 18장 6~12절		토요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요한1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설 교 Message	경쟁과 상생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395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